

霽峯 漢詩의 寫景詩

김은수*

<차 례>

1. 머리 말
2. 霽峯 漢詩의 寫景詩
 - 1) 「應製御屏六十二詠」
 - 2) 題畫詩
 - 3) 樓亭詩
3. 맺 음 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霽峯 高敬命의 漢詩 중에서 寫景詩를 연구 검토한 것이다. 사경시는 화폭에 그림을 그리듯이 쓴 시를 말한다. 자연경물에 대해서 서술적인 표현보다는 시각적인 畫法을 중시한 시의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다. 敘景詩는 한시의 전통적 표현방법의 하나이다. 흔히 王維의 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詩中有畫>·<畫中有詩>가 곧 그것이다. 제봉의 한시에서 ‘敘景’보다는 ‘寫景’을 강조하는 것은 「應製御屏六十二詠」 때문이다.

고경명은 조선 明宗의 62폭 병풍에 題詩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는 명종 17년(1562)에 임금의 小引이 기록되어 있는 御屏에 한 폭 한 폭의 그림의 내용에 맞추어 시를 지었다. 고경명의 敘景詩를 ‘寫景詩’라고 하는 것은 사경시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서경시는 단순한 경치를 서술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경시는 景致와 事物을 포함한다. 應製御屏의 시는 서경시가 많다. 그러나 그 중에는 봉황·솔개·오리·보라매 같은 조류나, 대나무·오동나

* 광주대학교

무갈대·매화·복숭아·들국화·벼이삭·여뀌꽃·월개화 같은 식물이나 꽃 같은 경물이 독자적으로 등장하는 작품도 많다. 따라서 이를 통칭하는 명칭은 사경시가 합당하다고 본다.

고경명의 「應製御屏六十二詠」은 작품의 배경 속에 나오는 소재와 제재가 알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임금의 위엄이나 덕망과 태평성세 나라와 백성들의 안락한 생활을 그리고 있다.

題畫詩는 御屏이 아닌 일반 서경의 작품을 그림을 보고 제화하듯이 쓴 작품들을 말한다. <蘆雁圖>·<漁舟圖>·<詠田家題畫障> 같은 작품들이 그것이다. 王維의 작품을 두고 말하는 ‘詩中有畫’라고 할 수 있는 계열의 작품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國朝詩刪』·『性所覆瓿稿』에서 가작으로 선집할 정도로 御屏의 작품에서 나타난 표현상의 한계를 극복한 문예성이 뛰어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樓亭詩는 고경명의 시작활동의 무대였던 담양과 호남지방의 많은 정자에서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應製御屏詩나 題畫詩가 그림을 보고 쓴 시라면 이들은 산수 실경을 보고 쓴 작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시들은 현장감에서 오는 활달함과 호방함을 느낄 수 있는 시작품들이다. <練光亭晚眺> 같은 작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핵심어 : 고경명, 사경시, 제화시, 누정시, 산수시, 詩中有畫

1. 머리말

高敬命(1533~1592)은 자는 而順, 호는 霽峯·台軒이며 광주 鴨保村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 高雲(1479~1530)은 정암 조광조, 눌재 박상 등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기묘사화 이후 현달하지 못했고, 부친 高孟英은

大司諫까지 지냈으나 고경명의 妻父인 金百鈞과 함께 李樑 일파였던 관계로 고단한 말년을 보냈다.

그는 20세 때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6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그리고 賜暇讀書를 거쳐 29세 때에는 홍문관에 들어가 명종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양 일파의 몰락과 함께 그는 좌천과 과직을 거듭하며 외직에만 머무는 순탄치 못한 宦路生活을 했다.

그는 49세 때(1581)에 영암군수로 재출사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1590년 堂上官으로 동래부사가 되었고, 이듬해 봄 璿系辨誣 功臣으로 光國勳에 錄名되었으나, 西人 鄭徹의 黨派라는 혐의를 받아 탄핵당했다.¹⁾

그는 임진왜란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그가 탄핵을 당해 낙향하여 고향에 머물고 있던 이듬해인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는 60세의 나이로 김천일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해 7월, 둘째 아들 因厚와 함께 錦山 전투에서 殉節하였다. 때문에 그는 시인으로서 보다는 의병장으로 더 알려져 왔다. 이항복도 제봉집 서문에 남쪽 지방에 시인이 많지만 고경명이 제일이요, 임란 때에 의병이 많았으나 고경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다고 했다. 그런데 임란후 충절을 포상하면서 고경명을 앞세우다 보니, 시문학에 대한 명성이 숨겨졌을 뿐, 시문학적 재주가 부족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²⁾ 라고 말했다.

고경명 시문학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양경우의 『霧湖詩話』·허균의 『惺叟詩話』·남용익의 『壺谷詩話』·김수항의 『文谷集』·홍만중의 『小華詩評』등에서는 단편적이지만, 고경명 시작품을 개괄할 수 있는 개략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고경명의 시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늘었다.

1) 「연보」 신유년 6월, 『국역 연려실기술』 3. 497쪽 참조.

2) 李恒福, 「霧峰先生集序」 『霧峰集』(南中多詩人 高霧峰爲之雄鳴 及壬辰之亂 咸言南中多義兵 又霧峰爲之倡焉 既寇退 朝廷褒死義之 推霧峰爲稱首 而向所稱詩聲 伏而不揚 非工於前而拙於後也 盖有重於詩者 爲之掩焉)

박준규는 連作詩에 능하고, 「遊瑞石錄」에서는 뛰어난 문장력을 과시했다³⁾ 했고, 민병수는 자연경물에 대한 감회와 자신의 회포를 잘 읊었다⁴⁾ 했고, 조동일은 호남의 풍류를 격조 높이 살린 시세계를 이룩했다⁵⁾ 고 했다. 또한 주목할 만한 학위논문도 속속 나오고 있다.⁶⁾

고경명의 寫景詩에 관심을 가진 연구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明나라 문신 莊應會는 시중에 그림이 있고 그림 중에 시가 있는 것 같아서, 元稹·白居易·韋應物·劉禹錫 등과 비교해도 단연코 명나라와 조선의 표준을 세울 수 있다고⁷⁾ 했다. 또한, 李鍾燦은 고경명은 題畫詩에 더욱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섬세한 시인적 감정이 慈愛와 忠義가 함께 하는 全人的 完遂의 龜鑑으로 삼을 만하다⁸⁾ 고 했다. 제화시는 곧 寫景詩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詩中有畫’ ‘畫中有詩’라는 말이 곧 그러한 의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경명의 寫景詩를 중심으로 그의 사경시의 특징과 표현미학을 살펴보기로 한다.

2. 高敬命과 寫景詩

寫景詩는 화폭에 그림을 그려내듯이 쓴 시를 말한다. 국문학에서 말하는 敍景詩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敍景’은 자연의 풍경을 서술한 것을 말한다. 반면에 ‘寫景’은 시나 그림에서 山水나 花鳥 및 자연현상에서 일체의 景物을 그려내는 것을 가리킨다.⁹⁾ 말하자면 자연

3) 朴俊圭, 「霧峰의 遊瑞石錄」 『古詩歌研究』 제1집, (고시가연구회, 1993)

4) 閔丙秀, 『韓國漢詩史』(태학사, 1977)

5) 趙東一,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94)

6) 姜志喜, 「霧峰 高敬命 漢詩研究」(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朴銀淑, 「高敬命의 詩研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李權宰, 「霧峰 高敬命의 文學研究」(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7) 莊應會, 「朝鮮故贈禮曹判書霧峰高君文集序」 『霧下彙錄』下卷.

8) 李鍾燦, 「高敬命論」 『朝鮮朝漢詩作家論』(동악어문학회, 1993)

9) 詩或畫之描寫山水花鳥及自然界中一切之景物皆曰寫景 『中文大辭典』3권 606쪽.

풍광을 그려내는 것만을 서경시라고 한다면, 자연풍광을 그려낸 서경시는 물론 花鳥나 풍광이라고 할 수 없는 개개의 사물을 그려내는 卽物詩까지를 포함하여 사경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敍景詩에 비하여 寫景詩의 재료는 매우 풍부하고, 이런 自然景物이 모두 시의 재료가 된다. 다만, 이 경물은 변함없는 동일한 경물이지만, 사람들이 관찰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람들의 묘사해내는 방법도 다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썬진하고 생생하게 그려내어, 독자가 한눈에 한 폭의 그림을 펼쳐낼 수 있는 것을 최상으로 친다.¹⁰⁾ 사경시라 하더라도 시인 정서의 근본적인 배제는 있을 수 없다. 노래는 물론이지만, 그림이라 하더라도 정서적 바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때문에 사경시도 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만, 사경시는 시인의 정서를 절제하고 자연풍경의 묘사에 비중을 두게 된다. 때문에 사경시는 田園詩와도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전원생활이 감정의 토로보다는 담담한 자연풍광의 서술에 치중했을 때 사경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사경시와 제일 가까운 말은 서경시라고 할 수 있다.

사경시의 要諦는 平淡과 閑靜이다. 평담은 순박한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화려함을 벗겨낸 다음에 평담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¹¹⁾ 한정은 곧 閑適함이다. 溪漁隱 胡仔가 苕溪에 卜居하고 물러나 날마다 고기잡이로 悠悠自適했다 하고, 持正 蔡確이 安州 수령으로 있으면서 여름날 車蓋亭에 올라 한가하게 지내며 시를 지었던 것을 閑適自在한 뜻이라고 했다.¹²⁾ 이러한 시의 경향은 王維의 시에 잘 나타난다. 왕유는 陝西省 藍

10) 張正體 外, 『詩學』(臺灣商務印書館, 民國74年, 255쪽) 寫景詩的材料最爲豐富 因爲自然界的景物 皆可作爲詩料 但景物是死的 同一景物 各人的看法並不相同 所以各人的寫法亦有差異 最主要必須寫得逼真活現 使讀者讀後 如眼前展開一幅圖畫爲上乘

11) 魏慶之, 『詩人玉屑』(世界書局印行 中華民國 69年, 218쪽) 欲造平淡 嘗自組麗中來 落其紛華 然後可造平淡之境 (중략) 李白云 <清水出芙蓉 天然去雕飾> 平淡而到天然處 則善矣

12) 『詩人玉屑』(219쪽)에서는 ‘閑適’을 「苕溪漁隱詩」와 「車蓋亭絕句」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를 예로 들고 있다.

溪邊短短長長柳 波上來來去去舡 鷗鳥近人渾不畏 一雙飛下鏡中天 (胡仔)

田縣 輞川에 別墅를 짓고 경치가 아름다운 20곳을 골라 輞川二十景이라 하고 輞川二十景詩를 지었다. 이러한 시들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망천의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을 ‘시 중에 그림이 있고(詩中有畫), 그림에 시가 있다(畫中有詩)’ 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의미를 만들어 내는 신묘함이 천지만물의 조화로움과 표리가 된다¹³⁾ 고 했다. 송나라 시인 梅堯臣도 시는 의미가 새롭고 언어가 정교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경지를 얻어낸 것이 좋고, 그려내기 어려운 경물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내어 다할 수 없는 뜻을 언어 밖에 함축해내야 좋은 시라 ¹⁴⁾ 고 했다.

고경명은 29세 홍문관에 들어가서, 그 재주를 명종에게 인정받는다. 명종은 문예적 취향이 남달랐다. 당시에 많은 관료들이 왕의 문예적 취향의 연회에 참석하여 시를 짓거나 그림이나 병풍에 시문을 짓곤 했다.¹⁵⁾ 그 중에서도 명종의 고경명에 대한 관심은 컸다.

임금이 편전에 나가 독서당 등의 제술 - 홍문관·독서당·승정원의 제술 및 평양 유생들의 제술이다. 이에 앞서 홍문관 부수찬 고경명이 왕명을 받들고 평양에 가서 유생들을 모아 제술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 을 입시한 재상들에게 내려주고 科次하여 올리라 하고, 전교하기를 “날씨가 춥기 때문에 술을 내려주니 편안히 주량에 따라 종일토록 마시라.” 하였다. 이어 초를 내려 주었다.¹⁶⁾

고경명이 왕명으로 평양에 가서 평양유생들의 제술을 거두어 온 실록의 기록이다. 『霧峰集』에도 辛酉年(명종16년, 1561) 겨울에 임무를 받들고 관서에 갔다 돌아오자, 임금께서 오가는 길에 지은 작품을 써서 바치라 하셨다.¹⁷⁾

紙屏石枕竹方牀 手倦拋書午夢長 睡起莞然成獨笑 數聲漁笛在滄浪 (蔡確)

13) 魏慶之, (『앞의 책』 314쪽) 此詩造意之妙 至與造物相表裏 豈直詩中有畫哉 觀其詩知其蟬蛻塵埃之中 浮遊萬物之表者也

14) 張正體 外, (『앞의 책』 256쪽) 凡詩 意新語工 得前人所未道者 斯爲善矣 必能狀難寫之景如在目前 含不盡之意見於言外 然後爲至也

15) 朴銀淑, 『高敬命詩研究』집문당, 45쪽.

16) 『朝鮮王朝實錄』명종 16년 10월 庚辰(24일).

이러한 기록들은 고경명이 사가독서를 거쳐 홍문관 들어가자마자 명종의 각별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물론 그의 시문학적인 재능에 대한 신뢰이다. 홍문관에 들어가서 1년 후인 30세 때(명종 17년, 1562)에 고경명은 명종의 62폭 병풍에 題詩를 맡는다. 홍문관에서는 大提學을 비롯하여, 典翰·應敎·校理·修撰·博士·著作·正字 등 조정의 많은 인재들이 經籍과 古典, 文翰에 대해 전문적으로 임금을 보좌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른바 조정의 이름 있는 문사들이 다 모인 곳이다. 그런데 御屏의 그림에 題畫을 혼자서 맡게 되었으니, 문학적 재능에 대한 임금의 신임에 짐작이 간다. 동시에, 고경명은 이러한 큰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의 시적 재능이 더욱 단련되었을 것이다. 이는 임금에 대한 은총에 대한 보은도 보은이지만, 다른 문사들에게도 내놓을 만한 몇몇한 작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경명은 30세 이전에도 문학적 체험은 많았으리라. 그러나 題畫詩의 이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고경명의 題畫詩·寫景詩가 빼어난 것은 이같은 御屏題畫라는 혼신의 시문학적 단련과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應製御屏六十二詠」

고경명은 명종의 62폭 병풍에 題詩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는 그 내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壬戌(명종 17년, 1562) 겨울 12월에 임금께서 안에서 畫本 하나를 꺼내 오셨는데, 폭이 모두 62개로 한 軸을 이룬 것이었다. 폭마다 각기 小引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모두 임금의 필적이었다. 나에게 시를 지어 들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새기고 쓰는 작은 기예로 詞館에 봉직하면서 총애와 지우가 융성하게 거듭됨이 이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辛酉(명종 16년, 1561) 가을에도 임무를 받들고 관서에 갔다 돌아오며 여정에서 지은 작품을 써서

17) 高敬命(「謁聖廟跋」『霽峰集』) 辛酉冬 奉使關西 暨還 上命寫沿途所製以進 上若干篇是也

바치라고 명하셨다. 詞臣을 우대하시는 뜻이 오래전부터 나타나셔서, 일찍이 각별한 마음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차서를 가리지 않은 명이 또 재주 없는 내게 이르렀다. 내가 비록 광대와 같이 어리석으나 은혜에 감격하였다. 다만, 詩學에 졸렬하고 詠物詩는 더욱 長技가 아니어서, 성대한 임금의 뜻을 찬양할 수 없을까, 한스러우니 이것이 부끄러웠다. 시가 완성되어 삼가 正書하여 바치니, 특별히 豹皮 한 장, 黃毛筆 열 자루와 丹山の 烏玉五笏을 하사하셨다. 모두 은밀한 명에서 나온 것이라, 朝廷의 신하들은 모르는 일이다. 이에, 전말을 기록하여 자손들에게 보이하고자 한다.¹⁸⁾

고경명은 30세의 젊은 나이에 명종에게 詩才를 인정받고 임금의 御屏에 62수의 시를 짓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시가 자연과 성정에 바탕을 둔 당시에 밝았다거나, 田園詩·浪漫詩·禪趣詩 등을 많이 창작했다¹⁹⁾고 하더라도, 寫景詩나 題畫詩에 특별한 재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체적 실증 내용이다. 고경명의 사경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어병의 제화시 창작은 그의 시적 재능을 말해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독실한 제화시의 수련과정을 말해주는 것도 되기 때문이다.

詠物詩는 의미상으로는 사물을 읊은 시이다. 그러나 고경명의 應製御屏詩는 단순한 사물만을 그려낸 것이 아니다. 뒤의 (가)·(나)·(다)·(라)에 예시한 작품처럼 사물을 묘사하면서도 그 배경에 그에 맞는 풍경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배경화에 치중한 작품이 62수 중에서 50여 수 이상이나 된다. 예를 들어 ‘봉황’이나 ‘학’을 소재로 했을 때, 그 소재가 화면을 차지한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실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시의 내용을 보면, 시인은 배경화에 더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것

18) 「應製御屏六十二詠 跋」(『霧峰集』 권1) 嘉靖壬戌冬臘月 上自內出 一畫本爲幅凡六十二共成一軸 逐幅各有小引記 實皆御筆也 命臣賦詩以進 臣竊念雕箋小技待罪詞館 寵遇隆疊非一二于此矣 歲辛酉秋 奉使關西 及還 命寫沿路所製以啓 其優待詞臣之意 復出前古 嘗切隕越之懷 不意不次之命 又及非才 臣雖朱愚 感恩則有 第恨拙於詩學 詠物尤非其長 無以揄攘盛意 是可愧也 詩成 謹繕寫以獻 特賜豹皮一張 黃毛筆十柄 丹山烏玉五笏 蓋出於密教 有非外廷所知也 聊識顛末于此 以示子孫云

19) 김은수 「霧峯 高敬命詩 研究」, 『고시가연구』28집(2011.8), 66~84쪽.

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응제어병시의 영물시는 사경시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물론 御屏 62수의 소재는 봉황 3수, 솔개 10수, 오리 8수, 보라매 5수, 학(두루미) 4수, 꿩 3수, 독수리 2수, 그 외에 기러기·까치·까마귀·올빼미 등이 각각 1~2수씩으로, 모두 26가지의 조류가 등장한다. 그리고 동물은 다람쥐가 1수 있을 뿐이다. 또한, 題畫詩의 또 다른 소재나 배경으로는 해 1수, 바다 6수, 대나무 4수, 오동나무 2수, 풀밭(잡초) 10수, 갈대꽃 9수, 소나무 3수, 월계화 3수, 잠목 4수, 그밖에 매화·유자나무·복숭아나무·들국화·보리이삭·벼이삭·백사장·여뀌꽃 등이 각각 1~2수씩으로, 모두 22가지다. 작품은 이같은 배경 속에 소재나 제재가 알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수목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 논문에서는 62수 중에서, 의미가 있고 작품성이 있는 4수만 발췌해서 논의해보려고 한다.

(가)

石骨高撐積氣中 우뚝한 바위 하늘을 받들고 있으니
 鯨波不動海無風 물결도 숨을 죽이고 바람도 없다
 更教威鳳翔天仞 근엄한 봉황새 높이 떠 있으니
 天宇褰開日浴紅 하늘에 돋는 햇살 온 세상에 빛나네
 『應製御屏六十二詠』 <海中崑上鳳凰日>²⁰⁾

(나)

梧桐生處是高岡 오동나무 높은 언덕에 서 있는데
 峩峩從知歲月長 긴긴 세월을 얼마나 지났을까
 歌罷卷阿時矯首 卷阿章 외울 때마다 옷깃 여미니
 鳳凰枝上上朝陽 봉황 앉은 가지에 아침 해가 떠오르네
 『應製御屏六十二詠』 <梧桐鳳凰日>²¹⁾

20) 『霧峰集』卷一.

21) 『霧峰集』卷一.

(가),(나)는 62수 중 1,2번째 작품이다. 이 시들은 앞에 설명한 대로 임금의 보내준 그림을 보고 쓴 것이니, 畫題인 셈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鳳凰은 말할 것도 없이 임금의 위용과 온 세상에 펼쳐지는 임금의 은혜의 상징이다.

(가)에서 ‘하늘을 받들고 있는 우뚝한 바위(石骨高撐)’나, ‘숨을 죽이고 있는 물결과 바람(鯨波不動海無風)’은 泰平盛世를 뜻하는 말이다. 해도 임금을 뜻한다. 구름이 걷힌 하늘에서 태양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것은 한없는 임금의 은혜 속에 백성들이 아름답게 사는 모습(日浴紅)이다.

(나)는 언덕 오동나무에 봉황이 앉아 있고 해가 떠오르는 그림의 畫題일 것이다. 여기에 卷阿章 22) 을 끌어들이는 것은 시인의 재능이다. 『詩經』의 「大雅」 「卷阿章」은 아름다운 疆土에서 임금이 백성들에게 복록을 펼치는 것을 노래한 것이다. 이 노래는 권아장 중에서도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9장을 패러디한 작품이다.

이 시는 그의 서경적 묘사재능을 알 수 있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고경명의 문학적 재질을 명중이 아끼지 않을 수 없음을 짐작케 하는 작품이다.

(다)

霜竹攸攸碧玉枝 서리 속의 대나무 푸른 가지 무성하니
 靑田標格最相宜 학의 놀이터로 정말 체격이네
 向來不有丹砂頂 이렇게 좋은 학 한 마리 없다면
 一種琅玕誰得知 한 모퉁이 대 숲을 그 누가 알리
 「應製御屏六十二詠」 <竹林靑鶴>²³⁾

(라)

蒼雪橫陳白雪翎 푸르른 대숲에 앉아 있는 흰 학
 望來紅頂轉分明 푸름 속에 흰빛이 아주 분명하다

22) 『詩經』(「卷阿」 10장중 9장) 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 峩峩萋萋 籊籊喑喑

23) 『靑峰集』卷一.

此君風韻堪醫俗 본래 대나무란 탈속한 식물인데
 何況仙禽羽翼成 더구나 鶴이 아름다움 보태주느니
 「應製御屏六十二詠」 <竹林白鶴>²⁴⁾

(다),(라)는 62중 5,6번째 작품이다. (가),(나) 작품이 聖德을 지닌 임금이 백성에게 따뜻한 정치를 베푸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시라면, 이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는 더 예술적이요 순수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같이 대숲과 학의 淨潔美와 調和美를 노래하고 있다.

淨潔이란 냉정에서 생긴다. 그래서 시, (다)에서는 霜竹을 내세웠을 것이다. 凋落의 가을이라야 대나무의 푸르름이 드러난다. 그것도 서리가 내린 다음의 서늘함 속의 대나무가 볼 만한 것이다. 이 淸淨한 대나무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또 淸淨한 멋이 없다. 모든 사물은 다른 사물과의 어울림 속에 더 높은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대나무도 鶴이 알아주고 놀아주므로 청정함이 빛난다.

(라)도 마찬가지다. 대나무의 풍치는 그 탈속함을 어쩔 수 없다. 風韻에 걸맞는 品格이 있어야 한다. 淸淨함과 崇高함, 대나무와 학이 그러한 어울림이다. 그러한 대나무는 淸淨脫俗한 鶴이라야 어울릴 수 있는 것이다.

시인은 이 수묵화에서 차가운 서리, 푸른 대나무, 푸른빛을 띤 흰 학을 찾아 맞춤형에 그려내고 있다.

2) 題畫詩

「應製御屏六十二詠」은 명종이 갖다 준 그림을 보고 題畫한 시작품이다. 고경명은 이외에도 題畫한 작품이 많다. 물론 이것들은 「應製御屏六十二詠」처럼 실제 그림을 보고 썼다고 볼 수는 없다. 눈앞에 전개되는 山水實景을 그림으로 생각하고, 그림에다 題畫하듯이 시를 창작한 것이 대부분

24) 『霧峰集』卷一.

일 것이다. 그러나 작품으로 봐서는 모두가 그림을 보고 시를 쓴 것처럼 되어 있다. 「蘆雁圖」·「漁舟圖」·「詠田家題畫障」·「題四皓園碁圖」 등의 작품들이 그것이다. ‘圖’가 뜻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작품들은 그림의 題畫로 써놓은 시작품으로 이해되는 작품들이다. 그러한 작품들을 몇 개 골라본다.

(가)

霜落關河雁影斜 서리 내린 강물 위에 날아가는 기러기 떼
 幾行摩月遶天涯 하늘 끝 달 어루만지며 얼마나 날아왔나
 澄江誰道淨如練 맑은 강물 비단 같다고 말하지 말라
 千頃黃蘆暗雪花 백설 같은 갈대밭이 제일 좋다오

「蘆雁圖」²⁵⁾

(나)

蘆洲風颭雪漫空 갈대밭에 바람 불고 눈발 날리는데
 沽酒歸來繫短篷 술을 사와 쪽배에 매어놓았네
 橫笛數聲江月白 첫대소리에 강에 달빛만 밝아
 宿禽飛起渚煙中 밤새는 물안개 속으로 날아오르네

「漁舟圖」²⁶⁾

강과 갈대, 기러기와 쪽배 같은 것도 수목화의 좋은 畫材이다. (가),(나)는 그런 수목화를 내용으로 한 題畫詩다.

(가)는 갈대꽃이 피어있는 강가로 떼지어 날아오는 기러기 그림을 보고 쓴 작품임을 알 수 있다. 遠景으로는 지평선과 달이 보이고, 近景은 하얀 갈대꽃이 피어 있는 강이다.²⁷⁾ 이 작품 맛은 轉句의 변화에 있다. 곧 ‘맑은 강물 비단 같다고 말하지 말라(澄江誰道淨如練)’의 화자 개입이 그것이다. 작품의 전개에도 느닷없는 발화지만, 이것이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25) 『霽峰集』卷一.

26) 『霽峰集』續集.

27) 張正體 外 『앞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 가까운 경물을 그린 다음에 먼 곳의 경물을 그린다’는 寫景詩手法의 ‘從近而遠法’, (是把近的景物先寫 而後及於遠處的景物)의 표현법이다. 여기서는 먼 곳의 경물을 먼저 그리고 있다.

先實後虛의 방법이다. 28) 즉 先景後情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러기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화자의 생각이지만, 그게 그림을 잘 살려내고 시를 만들어 내고 있다.

표현도 두드러진 것이 많다. ‘(雁影斜)’는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 떼의 시각적인 표현이다. ‘하늘을 돌고돌아(遶天涯)’나 ‘달을 어루만지며(摩月)’도 멋진 표현이다. ‘백설 같은 갈대밭(黃蘆暗雪花)’도 마찬가지다. 이쯤 되어야 기러기들이 천리만리를 날아서 올 것 아닌가.

(나)는 혼연일체의 서경적 경지를 그리고 있는 시다. 만건곤한 백설에 달빛도 하얗고 강물도 하얀 순백의 세상이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 또는 지저분한 것들이 흰 빛 속에 무르녹아 없어져버렸다. 시에서 흰 빛을 뚫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쪽배에 매달아 놓은 술병과 맑은 젓대소리 뿐이다. 술병과 젓대소리, 이것이 이 시에서 설정한 순백의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로 만들고 있다.

(나)는 눈 내리는 강마을의 밤 풍경이다. 먼저 눈발 속에 갈대밭이 조응된다. 갈대꽃이 다 저버린 겨울이라도 꽃이 진 곳에 다시 눈꽃이 피어 갈대꽃처럼 보이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하얀 갈대꽃과 눈이 어우러진 모습이다. 술병을 매어 놓은 고깃배는 풍경화의 한 소재일 뿐이다. 또 하나의 장면은 듽성듬성 날리는 눈발 속에 뜬 달이다. 그래서 달빛은 더욱 희고 온 누리는 순백의 세상이 된다. 젓대소리도 들린다. 맑은 달과 맑은 젓대소리도 아름다운 조용이다. 강물도 흰 빛이다. 물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젓대소리에 놀란 밤새마저도 물안개에 잠겨버린다.

起承轉結의 시점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하늘에서 강으로 이행(從遠而近法)이다. 轉句에서의 젓대소리는 청각을 일깨워 독자의 마음을 청아하게 하고 있다. 시각적인 감각에 시종 붙들려 있는 지루함을 청각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28) 張正體 外 『앞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 실경을 그린 다음에 허상을 그린다’는 寫景詩手法의 ‘先實後虛法’, (是先從實際之景物寫起 然後寫虛虛의 景物)의 표현 방법이다.

「漁舟圖」는 許筠이 편찬한 『國朝詩刪』에서 좋은 시로 選集되고, 특히 洪萬宗의 『小華詩評』에서는 聲律과 格律이 唐의 詩人에 靛진하다²⁹⁾ 고 극찬했다. 고경명은 허균의 仲兄인 荷谷 許筠과도 교류가 깊었다. 그는 荷谷·東岡과 평양에서 함께 보낸 적도 있었다. 『惺所覆瓿稿』에서 허봉은 고경명의 시에 깊이 감복했다³⁰⁾ 고 했는데, 그 작품도 산수 서경시라고 할 수 있다. 제봉집에는 고경명이 하곡과 창수한 시가 별도로 2수가 전한다.

(다)

大兒牽牛小兒騎 작은 아이 태우고 소 끄는 아이
水南烟草暮歸遲 해질녘 물안개 낀 개울 건너 돌아오네
橫吹短笛寒簑底 도롱이 덮어 쓰고 피리를 불면서
不怕前溪風雨時 몰아치는 비바람도 아랑곳하지 않네
「詠田家題畫障」³¹⁾

(라)

四老商顏齒髮齊 나이 서로 비슷한 商山の 네 노인이
紋楸一局靜中携 한가로이 앉아서 바둑만 들여다보네
星移洞府樵柯爛 세월이 오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데
電散晴空玉子迷 더구나 세상이 변하는 줄을 알겠는가
蝸甲坐忘酣戰壘 매미처럼 가끔 이슬이나 마시면서
松花不動銷巖栖 솔가루의 향기 맡고 살아가네
方知小數天機淺 끝내는 바둑 같은 이 소수를 가지고
竟下安劉一着低 劉邦에게 몰려가 천하를 안정시켰으니
「題四皓圍碁圖」³²⁾

29) 洪萬鍾 『小華詩評』 其聲韻格律極逼唐家

30) 許筠 『惺所覆瓿稿』(卷二十五) 仲兄深服高霽峰 每言同在涇水 人押交字 高公和之曰 ‘連村稔黍三秋後 一路風霜十月交’ 不覺屈服 여기서 말한 작품은 「次東岡韻」으로 역시 山水景詩라고 할 수 있다. 제봉집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危機縈雲近碧霄 悅疑重險出西看 千村稻黍三秋後 一路風霜十月交 明滅亂流翻夕照 透遲候騎度寒郊 自憐傷鳥創猶痛 長向南枝戀越巢

31) 『霽峰集』卷一.

32) 『霽峰集』卷三.

(다)는 병풍에 그린 屏風畫의 題畫詩이다. 병풍의 그림이니만큼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일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실제 풍경화를 그리는 것처럼 소묘하고 있다. 그림을 그리듯이 遠景에서 近景으로 차근차근 서술하는 것이다. 원경은 물안개(烟草) 낀 석양에 작은 아이를 태우고 큰 아이가 소를 끌고 온다. 큰 아이(大兒)는 형이고, 작은 아이(小兒)는 동생일 것이다. 형제의 우애가 넘쳐나는 정겨운 광경이다. 근경으로는 도롱이 쓴 아이의 피리 부는 모습이다. 비바람에도 의연한 모습이 연상된다. 몰아치는 비바람이라 하더라도 주위 경관이나 사물과의 어울림 때문이다. 아름다운 시골 정경의 寫景詩이다.

(라)「題四皓圍碁圖」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다. 四皓는 秦나라 말에 세상을 피해서 商雒深山에 들어가 지냈던 東園公·綺里季·夏黃公·甬里先生을 말한다. 霧峰集에는 같은 제목의 칠언율시가 한 수 더 있는데³³⁾ 이는 四皓가 구가하는 세계에 대한 고경명의 동경심의 표명이다. 고경명도 세속을 떠나 신선처럼 살면서 세상을 안정시키는 이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시에서 起聯은 그림의 풍경, 承聯은 세속과 절연한 모습, 轉聯은 그림이면에 숨은 신선의 고고한 모습이다. 그리고 結聯에서는 단순한 세상의 이치로 세상을 안정시키는 그들의 역량을 그렸다. 漢高祖 劉邦이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세자 책봉의 일로 세상이 다시 혼란해질 즈음에 呂后와 張良의 智謀로 사호를 초빙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내용³⁴⁾의 典故이다. 시의 구성상으로는 起聯만 실제적 寫景이지만 先景後情의 방법이며, 주제는 세상을 피해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고경명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33) 強役精神競出奇 只能忘世未忘機 晚來謬畫安劉策 綠是當年下手卑 (권1)

34) 上乃大驚曰 吾求公數歲 公辟逃我 今公何自從吾兒遊乎 四人皆曰 陛下輕士善罵 臣等義不受辱 故恐而亡匿 竊聞太子爲人仁孝 恭敬愛士 天下莫不延頸欲爲太子死者 故臣等來耳 上曰 煩公幸卒調護太子 (史記卷五十五 留侯世家 第二十五)

3) 樓亭詩

(가)

澗水悲鳴處 시냇물 줄줄 흐르는 곳에
 新霜着冷花 서리맞은 여귀꽃이 피었네
 夕陽紅一抹 석양빛은 온통 붉게 물들이고
 秋色襯餘霞 가을빛은 저녁노을 돋우네
 「俛仰亭三十詠」〈澗谷紅蓼〉 35)

(나)

曠日光搖練 반짝이는 햇살 비단처럼 여울지고
 涵虛界作銀 허공 품은 맑은 물은 은빛으로 찰랑대네
 夜來堪畫處 깊은 밤 고즈넉한 그림 속으로
 孤渡月中人 달빛 속에 외로이 지나가는 사람
 「息影亭二十詠」〈滄溪白派〉 36)

(가), (나)는 보이는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낸 듯한 작품이다. 題畫詩가 그림의 畫題이거나 그림을 보고 쓴 시라면, 樓亭詩는 山水實景을 보고 쓴 시이다. 寫景詩에 樓亭詩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 樓亭이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정자는 언제나 시인들이 詩想을 끌어낼 수 있는 한적한 시간에 이용하는 공간이다. 또한 시인묵객들은 樓亭에 오르면 시를 짓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다는 것도 누정시가 많은 까닭이요, 우선 이들이 누정에서 산수풍경을 접하게 되므로 사경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가)는 시냇가의 여귀꽃을 보고 쓴 시다. 서리가 내렸으니 푸르름은 눈에 띄지 않고 붉은 여귀꽃만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석양빛이 주위 풍경을 온통 빨강게 물들이고 있으니, 詩畫의 화면은 붉으스레한 파스텔톤일 것이다. 結句의 가을빛(秋色)이 저녁노을 빛깔을 돋군다(襯餘霞)고 했으니,

35) 『霧峰集』卷二.

36) 『霧峰集』卷三.

그 가을빛이란 무엇일까. 이는 원경으로 보이는 붉게 단풍든 숲의 풍경일 것이다. 작은 여귀꽃을 에워싸고 있는 붉은 단풍과 저녁노을을 그리고 있는 한 폭의 그림이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悲鳴)’는 그림에서 느낄 수 없는, 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청각적 미감이다.

(나)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息影亭에서 바라본 滄溪가 밤낮으로 변하는 풍경을 읊었다. 起句는 햇빛에 비단처럼 반짝이는 물의 모습을 그렸다. 承句는 물에 비친 하늘의 모습을 그렸다. ‘허공을 머금었다(涵虛界)’고 한 것은 물에 비친 하늘이요, ‘은빛으로 찰랑댄다(作銀)’고 한 것은 물결에 놓고 있는 흰구름이다. 轉·結은 달이 떠 있는 밤풍경이다. 달 빛 속에 외롭게 지나가는 사람을 담은 달밤의 풍경화이다. 이 시는 그림으로 치면, 낮과 밤 두 개의 화면이 연상되는 그림이다. 시인은 어느 한 시점에서 시를 쓰면서, 다른 시점은 기억을 살려서 썼다고 볼 수 있다. 시 속에 있는 이 山水畫는 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다. 이 작품은 畫法을 원용하여 섬세한 미감을 살린 사경시라고 할 수 있다.

(가),(나)와 같은 시들은 읽으면서 머리 속에 쉽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이미지가 선명한 詩中有畫의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다)

箕城東畔涇江頭	평양성 동쪽 대동강 머리에
中有縹緲之飛樓	나는 듯 솟은 누각 아득히 서있다
靑山一帶來袞袞	한 줄기 푸른 산은 멀리서 뻗어 왔고
白雲千載長悠悠	떠있는 흰 구름은 언제나 변함없다
猩袍仙子此時過	조정의 인재들은 지금도 살고 있는데
麟馬天孫何處遊	기린 탄 왕손은 어느 곳에 노니는가
玉簫吹徹綵霞盡	저녁노을 다하도록 들려오는 통소 소리
古國烟波人自愁	옛날 그 풍경이 사람의 애를 끊노라

「浮碧樓」37)

37) 『霧峰集』 卷四.

(라)

- ①城根袞袞大江來(平,灰) 성 밑에는 끝없이 흐르는 큰 강물
 城頭翼翼層蕙開(灰) 성 위에는 날아갈 듯한 높은 정자
 珠簾斜捲鏡光淨 주렴 사이 강물은 거울처럼 맑은데
 白鳥飛盡青天廻(灰) 갈매기는 푸른 하늘 끝에 나는구나
- ②津亭十里簇雲樹 나루터 십리에는 구름처럼 뻗뻗한 나무
 落照庚庚橫島嶼(上,語) 낙조는 가물가물 섬 마을에 비졌네
 畫船何處采菱兒 마름 따는 아가씨 어디로 배 젓는가
 風飄香袂凌波去(語) 옷자락 나부끼며 파도 따라 가물가물
- ③牧丹爲峯錦作山(平,刪) 모란봉 높은 봉우리 비단을 깔아놓은 듯
 粉堞倒浸平湖灣(刪) 성가퀴 그림자 호수에 고요히 잠겼네
 繁華自昔擅東藩 연광정 경치는 조선 경치의 으뜸이라
 酒幔爭誇烟柳間(刪) 버드나무 숲 사이 주막 깃발 나부끼네
- ④芳洲極目暗菰葉 물가에는 부들 잎 간들거리고
 藕絲時見佳人雪(入,屑) 연꽃잎은 가끔 눈처럼 휘날린다
 我來訪古劃長嘯 휘파람 불면서 옛 자취를 찾으니
 朝天石老江心月(入,月) 강 가운데 조천석이 달빛에 보이누나
- ⑤箕封往迹三千秋(平,尤) 옛날 지자의 발자취 벌써 삼천 년
 漢使風標第一流(尤) 전해온 좋은 풍속마다 빼어났다오
 江山遇賞天與奇 이렇게 좋은 강산 하늘이 주었고
 彷彿羽客仍丹丘(尤) 오늘날 나의 놀이도 신선인 듯하다
- ⑥却桴玉堂揮翰手(上,有) 옥당에서 휘두르던 붓 다시 잡지만
 酒向遐荒知者否(有) 갓은 생각 적은다해도 누가 알까
 江神定辦潤筆資 강물은 혹 나의 마음 짐작할는지
 笑倚江作葡萄酒(有) 웃으면서 포두주 한 잔 마신다
- ⑦酒酣氣逸豪興飛(平,微) 호걸스런 흥취에 날아갈 듯하고
 袖中卷盡東海歸(微) 두루마리도 대했으니 동해로 돌아가자

「練光亭晚眺」³⁸⁾

(다),(라)는 앞의 작품들에 비하여 시야가 넓은 활달한 작품들이다.

(다)는 평양성 부벽루에 올라가 옛 왕조의 회포를 담고 있다. 起·承聯은 도도히 흘러오는 강물, 힘차게 뻗어 있는 산줄기, 높이 솟아 있는 누각,

38) 『霽峰集』 卷一.

하늘에 떠 있는 흰구름을 차근차근 그려내고 있다. 눈앞에 전개되는 아름다운 경치의 사실적인 묘사다. 承·結聯은 아름다운 풍광이 불러일으키는 애절한 심경을 피력하고 있다. 麒麟 탄 王孫은 웅혼한 기상을 떨쳤던 고구려의 왕손을 말한다. 대동강변의 九梯宮은 동명왕의 離宮이요, 기린굴은 동명왕이 기린을 길렀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지금도 유능한 인재들, ‘붉은 관복을 입은 도사(猩袍仙子)’들은 그 시절의 만주 별관을 호령한 기상을 잇을 수 없다는 뜻이리라. 민족의 영화가 서린 고적을 보고 아름다움에만 도취할 수 없는 정서다.

(라)는 13운 26구 장편고시다. 押韻은 變韻法을 쓰고 있다. 이 작품은 用韻法에 따라 7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①단락은 平聲의 灰韻, ②단락은 上聲 語韻, ③단락은 平聲 刪韻, ④단락은 入聲 屑·月(通韻), ⑤단락은 平聲 尤韻, ⑥단락은 上聲 有韻, ⑦단락은 平聲 微韻이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②,③은 서경 단락, ④단락은 서경에서 서정으로 변환하기 위한 삽입단락, ⑤,⑥,⑦은 서정 단락이다. 앞 단락과 끝 단락의 평성·상성·평성의 변화는 똑 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 ④단락에 입성운을 쓰고 있는 것은 내용의 변화에 따른 의도적인 배려인 것으로 보인다.

서경단락에서 ①,②,③단락에서 포괄적인 조망과 섬세한 조망이 함께 이루어진다. ④단락은 사물에 대한 유미적 접근과 함께 화자가 자신을 인식한다. 서정을 위한 준비단계다. ⑤,⑥,⑦단락은 유구한 역사를 회상하고,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호방한 마음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3. 맺음말

고경명의 漢詩에서 寫景詩를 내용으로 살펴보았다. 사경시는 자연경물을 화폭에 그림을 그리듯이 쓴 시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詩中

有畫, 畫中有詩라는 말이 있었다.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말이다. 특히 중국에서 좋은 사경시를 썼던 사람은 당나라 시인 王維, 송나라 시인 梅堯臣이 유명하다.

고경명은 29세에 홍문관에 들어가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명종 17년(1562), 30세 때에 명종의 명령으로 62폭의 御屏에다 題詩하게 된다. 폭마다 임금이 손수 小引을 붙인 62폭의 병풍의 제화를 혼자서 맡게 되었다는 것은 임금의 신임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문학적 재능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동시에 고경명은 이러한 큰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화시의 문학적 단련이 있었을 것이다. 제화시 수법은 곧 사경시의 수법이다.

고경명의 시작품 중에 「應製御屏六十二詠」이외에도, 제화시가 많다거나 樓亭詩·寫景詩가 많다는 것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왕실의 御屏題詩의 大事를 수행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또한 고경명의 제화시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논문에서는 고경명의 사경시를 「應製御屏六十二詠, 題畫詩, 樓亭詩, 山水詩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應製御屏六十二詠」는 모두 62수이다. 소재는 임금을 상징하는 봉황이 3수, 맹금류인 솔개 10수, 보라매 5수, 독수리 2수, 민속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오리 8수, 학(두루미) 4수, 꿩 3수, 등 26가지의 조류가 등장한다. 동물은 다람쥐가 1수 있을 뿐, 거개가 조류이다. 題畫詩의 또 다른 소재나 배경으로는 임금을 상징하는 해 1수, 세상을 상징한 바다 6수가 나온다. 오동나무 2수도 봉황·임금과 관련된 사물이다. 그 외 대나무 4수, 풀밭(잡초) 10수, 갈대꽃 9수, 소나무 3수, 월계화 3수 등 모두 22가지이다. 작품은 이같은 배경 속에 소재나 제재가 알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수묵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봉황·오동나무·바다 등을 제재로 하고 있는 작품들은 임금의 위엄이나 덕망과 태평성세, 나라와 백성들의 안락한 생활을 그렸다. 또한 솔개나 보라매는 용맹스러운 기상을, 대나무와 학은 고고하고 정결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은 유유자

적한 서경적 풍경을, 어떤 작품은 자연 속에 자유분방한 동물들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題畫詩는 어병이 아닌 일반 그림을 보고 제화한 작품을 말한다. 고경명의 시작품에는 이런 작품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살펴보았다. 이런 작품은 御屏의 표현상의 한계를 극복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國朝詩刪』·『性所覆瓿稿』 같은 데서도 고경명의 가작으로 이러한 제화시 작품이 선집되고 있다. 과제로서의 수동적 題詩보다, 자연발생적 능동적 題詩에서 창의성과 문예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사실이다.

樓亭詩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할 가치가 있다. 고경명의 시작활동 무대였던, 담양과 호남지방은 많은 누정이 있고, 그를 근거로 해서 많은 시작품이 창작되었다. 임억령·김성원·정철·양응정·노수신·송순·기대승 등 많은 호남문사들과 식영정·면양정소쇄원 등의 누정에 드나들면서 많은 시를 지었기 때문이다. 題畫詩가 그림을 보고 쓴 시라면, 이들은 산수실경을 보고 쓴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누정시는 작품에서 제화시와는 다른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작품에 따라서는 웅장한 광경을 실감할 수도 있다. 제화시가 화면의 한계에 따른 섬세미와 유미적 묘사에 국한된다면, 누정시는 무진장하게 펼쳐진 전경에서 활달함과 호방함을 그려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練光亭晚眺」같은 작품이 그 예다. 이 작품은 장편시로 단락을 나누어 변운법을 써가면서 큰 시상을 펼치고 있다. 활달함과 호방함에서는 제화시가 따를 수 없는 작품이다.

참고문헌

『霽峰集』

『明宗實錄』

『詩經』

『史記』

洪萬鍾, 『小華詩評』

許筠, 『惺所覆瓿稿』

許筠, 『國朝詩刪』

姜志喜, 「霽峰 高敬命 漢詩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金學主, 『中國文學史』, 신아사, 1996.

閔丙秀, 『韓國漢詩史』, 태학사, 1977.

朴銀淑, 「高敬命의 詩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高敬命詩 研究』, 집문당, 2002.

朴煥圭, 「霽峰의 遊瑞石錄」 『古詩歌研究』, 제1집, 1993.

魏慶之, 『詩人玉屑』, 世界書局印行, 中華民國, 69년.

李權宰, 「霽峰 高敬命의 文學研究」,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李秀雄·金經一, 『中國文學史』, 새교과서(주), 1994.

李鍾燦, 「高敬命論」, 『朝鮮朝漢詩作家論』, 동악어문학회, 1993.

張正體·張婷婷, 『詩學』, 臺灣商務印書館印行, 中華民國64年.

전송열, 「李達詩와 15·6세기 學唐과의 관련양상」, 『열상고전연구』21, 2005.

趙東一,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94.

투고일 : 2013년 1월 1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Abstract>

A study on Ko Gyoung-myung's Sagyoung Poetry

Kim, Eun-soo

Jaebong, Ko Gyoung-Myung(1533~1592) was a famous poet in Chosu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bout Ko Gyoung-myung's chinese poems, and aims to make an analysis of Sagyoung-poem(寫景詩, landscape-poem). Ko Gyoung-myung's Sagyoung-poem is fore types

First, Eungje-yobyong-sixty-two poems(應製御屏六十二詠), was wrote by ask of Myoung-jong. These works are one of Jaehwa-poem(題畫詩, picture-poem), about a sixty-two fold screen. These Jaehwa-poems symboled king's authority, welfare of all the people, and comfortable retirement. Also, many works described natural beauty. Perhaps, he must have disciplined this important work in his early time.

Second, Ko Gyoung-myung's Sagyoung-poem is a purity Jaehwa-poem(題畫詩). These works are on his initiative lesson, because these poems are an original works.

Third, Ko's work is Noojoung-poem(樓亭詩, pavilion poem). He wrote a lot of poems in pavilion, and interchanged many poets there.

Forth, Noojoung-si take a major portion in interchange poem. But Sansoo-poem (山水詩, landscape poem) is a purity, spontaneous works. These works are a unique creation, dearest literary arts.

In conclusion, Sagyoung-Poem which appears in Ko

Gyoung-myung's works has a scenery picture in poetry, on other hand, a poem in scenery picture.

Key words : Ko Gyoung-Myung, Sagyoung-poem, Jaehwa-poem,
Noojung-poem, Sansoo-poem, scenery picture in poetry